

광주·전남 내년 국비반영액 들여다 보니

‘AI’ 미래 먹거리 생태계 구축

시, 자동차산업 등 지속가능 경제발전 동력 마련

광주시가 확보한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중 두드러진 성과는 인공지능과 자동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동력을 마련한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며 “미래먹거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수시로 당부하는 등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비확보에 힘을 보탰다. 시와 국비사업의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부처들과 상시 접촉, 사업의 필요성 제기 등 지역현안 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국비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분야별 국비확보 내용을 보면 문화 113건(1,504억 원), 경제 기반 구축 96건(4,135억 원), 사회안전망 확충 69건(1조8,390억 원), SOC 확충 35건(7,077억 원), 민주인권 창생도시 45건(351억 원) 등이 확보됐다. 문화·관광 사업으로 첨단실감 문화콘

텐츠 테마파크(G-Planet) 조성(5억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4호편드출자(100억 원), 아시아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조성(7억5,000만 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10억 원), 아시아 문화테마공원 조성(1억5,000만 원),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590억 원) 등이 반영됐다. 풍요로운 경제 광주 기반 구축 사업으로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666억9,000만 원), 자율주행차 대응편의대상 부품산업 고도화(30억 원), 수요기반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33억6,000만 원), 카타터연계 생체용 메카노 스마트 의료기기실증기반 구축(20억 원), 대용량 고순도 국제표준 펩타이드 분석공정기술 개발(10억 원), 태양광이용 70MPa급 이동식 수소충전시스템 개발 실증(21억 원),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90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녹색도시 조성 사업으로 장애인수련시설 건립(67억 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142억 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70억 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16억 원), 하남산단 완충저류 시설 설치(100억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114억 원), 스마트하수관로 정비 선도(166억 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34억 원) 등이 확보됐다. SOC 등 시민이 편한한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2,750억 원),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40억 원), 에너지밸리 진입도로개설(76억 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건설(1,800억 원), 광주시운전면허시험장 신설(95억 원), AI기반 원스톱시스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18억 원) 등이다. 시는 증액 또는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임위원과 예정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 활동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블루이코노미 사업 대거 반영

도, 신산업 핵심 거점 구축·탄소중립 실현 기대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반영액은 총 7조5,131억 원으로 지난해(7조1,782억 원)보다 3,300억여 원이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각 정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재정부국을 집중 방문해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분야별로 SOC의 경우 28개 사업 8,640억 원이 반영됐다. 기본계획 수립 중인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사업 1,200억 원을 확보, ‘보성-순천’ 구간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광주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2,617억 원도 확보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연구개발(R&D) 분야는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5억 원 등 12개 사업 245억 원이 반영됐다. 1조 원대에 달하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대형연구인프라 불모지인 전남에 유치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에너지·전략산업 분야는 EV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등 21개 사업 554억 원을 확보했다.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시대 대응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전남 제조업의 핵심 거점인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은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80억 원 등 21개 사업 977억 원이 확정돼 저탄소·지능형 산단으로 탈바꿈한다. 또 수소 추진 레저어선 및 기자재 개발 19억 원 등 8개 사업 796억 원이 반영, 전남 친환경박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바이오·백신산업 분야는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사업 14억 원 등 13개 사업 415억 원이 포함됐다. 농·수산 분야는 64개 사업 3,996억 원을 확보했다. 도가 강력 건의한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4억 원이 반영됐다. 중국산 김치에 대응, 김치 종주국 위상 회복을 위해 김치산업 육성, 배추 수급조절, 수출시장 개척 등을 지원한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천혜의 전남 갯벌과 관련, 신안 추포도 갯벌 생태계 복원 14억 원, 순천 화포해역 갯벌 생태계 복원 24억 원도 확보했다. 관광·문화 분야는 전남도가 기획해 건의한 남부관광역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한국섬진흥원 설립 47억 원, 전남 디지털 에니메이션 센터 건립 2억 원 등 15개 사업 772억 원이 반영됐다. 도는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와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등 건설 사업비는 내년 조기착공을 위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전라선 고속철도건설, 해상풍력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속히 선정되도록 강력 건의할 방침이다. /길용현 기자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에서 김나윤 의원이 좌장을 맡고 ‘지역영화 전남기후·영화센터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지역 영화산업 발전 생태계 구축해야”

시의회, 영화센터 구축 방안 포럼 주민 위한 휴식·창의적 공간 주장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시의회 예결위원회의실에서 ‘지역영화 전남기후·영화센터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와 영화영상산업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지역영화 현황을 되짚어보고 영화센터의 필요성을 공유하며 향후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인 흥성원 서울영상위원회 사무처장은 ‘영화전담기구 왜 필요한

가?’를 주제로 지역영화 정책을 위한 전남기구의 필요성과 구상, 타지역 영상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방 조례의 아쉬운 점을 사례로 들며 발표했다. 김익석 동의대 영화학과 교수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예로 들어 지역영화센터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지역 영화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영화센터의 필요성을 말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과 창의적 공간이 영화산업에 주창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양종근 한국영상위원회 부위원장, 운수안 전 광주독립영화관장, 이순학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등이 참석해 포럼발제에 따른 자유토론을 이어나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나윤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6)은 “지역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확고한 생태계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데 광주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시의회도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고 누릴 수 있는 지역영화 거점 센터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정기 브리핑

신정훈 “나주·화순 신규사업 12건 확정”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최종 확정 발표한 가운데 내년 나주·화순 지역 주요 신규사업이 총 12건에 총사업비는 무려 1조 4,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의원에 따르면 ‘나주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총사업비 9,000억원)’을 비롯해 ‘화순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노베이션 랩 구축(총사업비 450억원)’, ‘나주 금천-화순 도암 국도 58호선 확장(총사업비 3,064억원)’ 등 나주·화순의 미래 성장동력, 지역 현안사업, SOC 등 굵직굵직한 사업예산이 성공적으로 확보됐다고 밝혔다. 특히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개교와 함께 호남이 앞으로 국가 과학기술과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화순의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노베이션 랩 구축사업’,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사업’ 등 바이오·백신분야 신규사업의 경우 정부

의 글로벌 백신 허브 정책에 따라, 전남이 K-백신을 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굵직굵직한 지역사업이 올해 정부 예산안에 다수 반영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코로나19로 정부 각 부처 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축되는 상황에서 이뤄낸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은 기자

시 사회적경제 쇼핑몰 ‘가치사세’ 운영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광주시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광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가치사세’이 공식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가치사세’ 쇼핑몰은 ‘가치 있는 광주·같이 사는 광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착한소비, 착한경제로 연결되는 사회적가치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쇼핑몰에는 광주사회적경제기업의 1,200여개 제품과 서비스가 입점했다. 1일부터 명절맞이 선물전과 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공식 운영 기념 이벤트로 신규 회원가입 축하쿠폰과 금액대별 할인쿠폰 증정 및 9월 한 달간 첫 구매 고객 50명과 9월 최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 및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황애란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건설기계 세계 1위를 향해 도약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글로벌 No.1으로 가는 길에 함께 할 소중한 인재를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홈페이지 참조 recruit.hhi.co.kr)

현대중공업지주 KSOE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오일뱅크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